

미국, 그들만의 불교 만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불교와 수행풍토 조명

미국 불자수가 증가하면서 아시아 불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국불교가 생기고 있다. 미 3대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시각으로 6월 17일 'What's an American Buddhist?(누가 미국 불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동양에서 전래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미국 불교와 수행풍토에 대해 조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불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종교조사 기관인 '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에서 불교는 170%나 성장했다"며 "이 연구결과는 미국내에서 불교가 눈에 띄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며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불자들은 불교를 배우기 위해 스리랑카, 티베트,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아시아 불교의 전통들을 접하며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찾는다고 한다.

남방불교의 유패사나, 일본의 좌선 등 명상위주의 수행을 하는 불자가 있는가 하면, 팔정도의 삶을 따르며 오계(五戒)만을 지키는 삶을 추구하는 불자 등이 그것이다.

2500년 전 붓다가 보리수 나무아래서 얻은 깨달음이 왜 오늘날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것일까.

워싱턴 포스트는 "불교는 어떤 대상을 신격화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단순하고 보편적인 진리와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이라며 "북미에서 신성한 전통 종교를 새롭게

1990~2000년 대 미국 불자 급증

미국인, 단순·보편적 진리 선호

염불·독경보다 명상 인기

게 개발해 발전시키려 한다면 불교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아시아의 정신적 측면, 그 중에서도 불교가 성서위주의 종교보다 대조적인 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교를 더 선호한다. 미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불교는 물질과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 체험을 보여주고 자연에 대한 착취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줘 서구인들이 경도되기 충분한 종교"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동양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염불, 독경의식과는 달리 유패사나와



미 아이오와 주(州)에서 열린 '명상 공원 대중 법회'. 미국에서는 동양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염불, 독경의식과는 달리 유패사나와 명상수행 등이 미국 불교의 전형적 수행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명상수행 등이 미국 불교의 전형적 수행프로그램이 됐다는 점도 소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현상은 산스크리트어나 동아시아 언어로 행해지던 불교의 식이 점진적 의식의 확장을 위한 수행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며 "미국인들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만 제대로 수용한다면 그들은 다양한 방편의 수행법을 취사선택해 그들만의 합리적인 종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과한 채 미국만의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낸다면 결국 맹목적

인 광신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불교문화에 덧붙여 생긴 또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새로운 미국 종교가 생기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이를 지나칠 경우 미국 불교는 아마도 900년 뒤 독일산 기독교 신봉자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광신도를 만들어낼 것이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신라불교와 한국학의 대가

세계의 불교학자(22)

리처드 맥 브라이드
美 하와이 브링엄영대 교수



《화랑세기》는 신라중대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김대문이 지은 책으로 화랑도와 신라 왕실, 귀족 간의 인맥 관계, 권력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선시대부터 사라진 책으로 분류됐던 《화랑세기》는 1989년 갑자기 지방의 한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筆寫本)을 공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학계는 필사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두고 10여 년간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다 1999년 진본설을 주장해온 이종욱 서강대 교수가 국역 역주본 《화랑세기》를 출간하면서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 이때 국내 학계와는 거리가 먼 서구학자가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바로 리처드 맥 브라이드(Richard D. McBride · 43 · 사진) 교수다. 그는 "《화랑세기》 필사본은 쓰다 만 한문소설"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현재 미 하와이 브링엄영대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아시아 역사 및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

《한문자료공》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맥브라이드 교수는 브링엄영대대학에서 학부·석사과정으로 아시아학·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자를 배웠다. 미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에서 신라 불교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2007년 동국대에서 특별 초청강연 형식으로 '화랑세기에 대한 미국학자의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화랑세기》 필사본이 근대 한문학사상 중요한 위상을 누릴 수 있는 창작물이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사서는 아니다"라며 "이 책은 일제시대 쓰다 만 한문 소설로 볼 수 밖에 없으나 위작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화랑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풍월주(風月主)를 비롯한 필사본 특유의 일부 용어들은 비슷한 시기 문헌에는 없고, 16세기 이후 조선시대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것들로 파악됐다"며 "당대 신라에서 필사본에 언급된 용어 개념을 쓰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필사본은 사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불교사 측면에서도 《화랑세기》 필사본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장보살과 미륵신왕의 경우 동시대 불교문화를 앞서 주도한 중국에서도 훨씬 후대에 나타났던 양상이 서술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라 불교의 신앙과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중국 불교에서 《화랑세기》의 시기인 6세기 지장·약사보살의 환생 신앙은 나타나지 않으며, 8세기 말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이런 내용을 2008년 하와이대학 논문집 '신라불교와 필사본 화랑세기'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맥브라이드 교수가 한국학과 신라불교에 매료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89~90년 경상도 지역에 개신교 선교사로 왔다가 통도사, 불국사 등에서 스님들과 만나면서 신라 불교사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학부를 마친 뒤 1994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연세대 외국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신라 불교사 저변으로의 천착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미 UCLA 대학에서 '불교신앙과 화엄사상'으로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신라 전제왕조사 쪽으로도 관심을 넓혔다.

선교사로 왔다 신라불교에 매료

한국학·한문·불교학 천착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어 번역 참여

《화랑세기》 논쟁을 주목한 것도 이때부터다. 2002년에는 미국 아시아학회에 이 논쟁을 처음 글로 소개하기도 했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한 일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사본 내용의 영어 번역본과 진위 논쟁 분석서 발간이 당장의 목표"라며 "《화랑세기》 필사본을 남긴 재야 학자인 박창화(1889~1962)의 80권이 넘는 다른 역사, 문헌류 저술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어 번역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재직중인 브링엄영대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역사와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흥미를 느낀다고 했다.

"저는 근현대세계사와 동아시아 전통 및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수행과 믿음, 신앙을 배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복잡하게 얽힌 문화의 태두리 안에 서료가 공존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이너는 기자

濠, 스리랑카 공동체 '꿈' 꺾였다

멜버른의 나레 워렌 구의회 '불교명상센터 건립' 부결



호주 멜버른 교외지역 나레 워렌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인 공동체가 불교모임을 갖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교외지역 나레 워렌(Narre Warren)에서 살고 있는 스리랑카인 공동체의 꿈, '불교명상센터(Buddhist Meditation Centre)를 건립하겠다'는 서원이 꺾였다.

인터뷰 미디어 캐시 위클리가 6월 20일 "나레 워렌 구의회가 스리랑카인 공동체의 숙원 사업인 불교명상센터 건립에 대해 주저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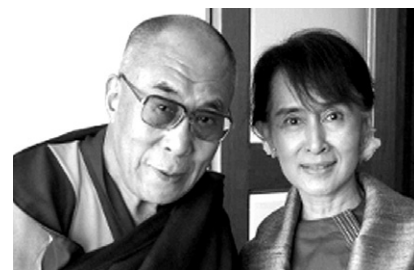
베브 헤스티(Bev Hastie) 구의원은 "건립 예정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했다"며 구의회 부결을 전하는 한편, "캐시 지역의 스리랑카인 주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며 "스리랑카인 공동체에서 대해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 대로 구의회는 논의는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시 위클리 따르면, 구의회 회의장에서 불교명상센터 건립을 찬성하는 방청객들은 기도하며 구의회를 결정을 기다렸고, 반대하는 방청객들은 '저밀도 주택은 찬성, 고밀도 사원은 반대(Low-density housing NOT high-density temple)'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에 맞서는 등 뜨거운 양상을 보였다.

이에 앞서 스리랑카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마하메브나와 브하바나 아사푸와(Mahamevna Bhavana Asapuwa)는 스리랑카인 공동체의 신령 및 수행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나레 워렌 북쪽 지역인 할렘가(Hallam Road)에서 18,000㎡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백인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감안, 사원(temple)이 아닌 불교명상센터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스리랑카인 공동체의 세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 '교통 혼잡', '사생활 침해', '재산권(부동산) 보호'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 라마-아웅산 수치 런던서 만남 가져



달라이 라마(Dalai Lama · 76 · 왼쪽)와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 68 · 오른쪽)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만났다. 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이 달라이 라마의 공식 웹사이트를 인용, 6월 20일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는 19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자신과 수치 여사가 19일 영국 런던에서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수치 여사에게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고, 이에 수치 여사는 "휴머니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속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2년 7월 7일 - 7월 13일 [6박 7일]	우 도다나 사야도 [통역: 일창스님]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릉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작 날 - 7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2시
- 참가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관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는 선원에 비치됨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중합반 :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 특 해 :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 說法 研修 院
서울시 중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희

漢文 漢글 漢글 漢文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그동안 겸용의식집으로 염불과 경전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는 스님들과 법사님들 불자님들의 격려와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과 다소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겸용의식집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합니다.

1. 기존염불(漢文念佛)과 한글염불(경전내용)을 염불 순서대로 구성하므로 한문과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2. 경전의 뜻으로 염불을 구성하므로 수지독송을 하면 경전 공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염불에 불문이 없도록 운운은 없게하고 초심자도 다른 부분을 넘길 필요없이 한권의 책으로 순서대로 염불하면 된다.
4. 6권으로 분류하여 실용화하고 염불할 때 책장으로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염불에 추가책이 필요없게 하였다. (1 예경,각경 / 2 천도, 시식 / 3 수계, 방생 / 4 정의 / 5 점안 / 6 독송집)
5. 기본염불의 한글화나 경전내용 공부는 한국불교의 과제인데 방법으로 염불의 한 부분을 예를 들어 소개하면 (삼보통칭)에서 삼칭을 하는 청사를 ②정은(漢文念佛)로 ① 정은(한글염불)로 한다면 별도의 노력 없이도 경전공부와 한글염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화주문 : 054)974-1345. 011-277-8024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 성목스럽게 출가하여 스님이나 법사님 또는 전문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바랍니다.

금불 장엄사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803-1
주지 성목 합장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